

厚朴의 原植物에 關한 考察

배 형 도
(화생당 한약방)

1. 목적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후박(소위 토후박)은 본래의 후박과 전혀 다른 식물인데도 참된 후박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후박의 진위 여부와 함께 언제부터 어떻게 잘못 알려져 왔는지를 조사하고 이들 후박의 原植物을 확실히 하고자 하였다.

2. 考察

(1) 標準本草學^{주2}

〈基本〉木蘭科^{주2}에 속하는 낙엽교목 *Magnolia officinalis* 唐厚朴의 樹皮(幹皮)를 藥用에 供한다.

× (1) 韓國產厚朴은 樟科(녹나무과)에 속하는 *Machilus thunbergii* var. *obovata* 「왕후박나무」 및 *Machilus thunbergii* 「후박나무」의 幹皮가 같이 쓰인다.

(2) 日本產 和厚朴은 木蘭科에 속하는 *Magnolia obovata* 和厚朴^{주3}의 幹皮이다.

〈學名〉*Machilus thunbergii*(韓國產)

Magnolia obovata(日本產)

Magnolia officinalis(中國產)

(2) 原色本草維新^{주4}

〈起源〉本連科에 屬한 落葉喬木인 후박나무의 樹皮이다.

〈學名, 種類〉

① 한국산: *Machilus thunbergii*

② 日本產: *Magnolia obovata*

③ 中國產: *Magnolia officinalis*

(3) 原色天然藥物大事典⁵⁵

〈基源〉 후박 및 요엽후박(凹葉厚朴) 등의 樹皮

〈學名〉 Magnolia obovata(厚朴) : Magnolia biloba(요엽후박)落葉喬木으로서 10여m 까지 자라며, 樹皮는 紫褐色이고 幼枝는 털이 있다 잎은 互生하며 橢圓狀 倒卵形으로, 끝이 잡자기 둥근 편이다 5월에 白色꽃이 피며, 果期는 9~10월이고(후박), 일본목련(日厚朴) Magnolia obovata는 代用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심고 있는 것은 唐厚朴과 日厚朴의 中間型으로 생각되는 것이 많다

이상은 원색천연약물대사전의 후박에 관한 설명이며 다음은 같은 책에 실린 토후박-본 대사전에는 한후박(韓厚朴)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의 내용이다

〈異名〉 紅楠皮 · 烏樟皮 · 釣樟皮 · 楠仔本皮

〈基源〉 후박나무 및 왕후박나무의 樹皮

〈學名〉 Machilus thunbergii

Machilus thunbergii var obovata(왕후박나무)

常綠喬木으로서 約 20m까지 자라며, 樹皮는 褐灰色이다. 잎은 互生하고 타원형 또는 倒卵狀 타원형이며, 끝이 뾰족하고 革質이다. 5~6월에 황록색꽃이 피며, 圓錐花序는 腋生하고 9~10월에 열매가 黑紫熟한다. 중남부 지방에 분포하고, 울릉도 및 남쪽 섬에서 흔히 자라는데, 厚朴의 代用으로 쓰이고 있다

(4) 校正中藥大辭典⁵⁶

厚朴

〈異名〉 厚朴 重皮 赤朴 烈朴

〈基源〉 爲木蘭科植物厚朴或凹葉厚朴的 樹皮或根皮

〈原植物〉

① 厚朴 Magnolia officinalis

② 凹葉厚朴 Magnolia biloba

紅楠皮

〈基源〉 爲樟科植物紅楠的 根皮或樹皮

〈原植物〉 紅楠 Machilus thunbergii, 又名 저脚楠 楠仔木 · 楠柴 白漆柴 烏樟 · 釣樟

(5) 試驗征服⁵⁷

■ 본 초

支那에서 厚朴이라 稱하는 것은 木蘭科, 樟科 又は 榆科屬 等 三鍾植物 中에서 何一屬의 樹皮를 採用하는 듯 하나 其 原植物이 未詳하며 且 本邦에서는 厚朴의 原植物이 無하므로 內地⁷⁸ 에서는 山地에 自生하는 木蘭科屬인 浮爛羅勒(ホウノキ)의 樹皮를 商州厚朴이라 稱하고 朝鮮에서는 濟州道 及 울릉島 特産인 樟科屬 落葉喬木⁷⁹ 楠木 又は 楠仔木(イタクヌ 후박 나무)의 樹皮를 朝鮮厚朴이라 稱하여 代用하나 此等은 모두 厚朴의 一種으로 下品이 된다

(6) 鄉藥集成方⁷¹⁰

厚朴(鄉名)후박나무 것껍질(楠木, 楠仔木)이라 했으나 本草綱目⁷¹¹에는 卷三十五에 厚朴이 있고, 역시 같은 책 卷三十四에 楠이 있어 다른 나무로 되어 있다 아래에 향약집성방 序文을 拔萃 引用한다

原文 草木藥材之産凡以養民生而療者蓋亦無不備焉 · 忽其近而求之遠人病則必索中國難得之藥 民間故老能以一草療一病其初期神者豈非宜土之性藥與病值而然也· 不出國中而可以療疾者乎 人患不知耳 · 藥易求而病易治 人皆便之……

· 초목약재가 생산되어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질병을 치료하도록 되어 있다……가 가까이 있는 것은 소홀히 하고 멀리 있는 것을 구하려하여 사람이 병이 나면 구하기 어려운 중국 약재를 찾는다 백성들 중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가지 약초로 하나의 병을 치료하는데 그 효과가 아주 좋으니 이것은 약과 병이 향토의 성질에 맞기 때문이다 · 필요한 약재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아도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약을 쉽게 구하고 그리하여 병이 쉽게 치료되어야 좋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후박이 없는 관계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있으며 이름이 같고 약성이 비슷한 楠木을 厚朴의 代用으로 책에 올린 것이라 생각된다 -楠木을 후박나무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이전부터 그렇게 불러 왔는지 또는 그 당시에 楠皮를 厚朴 대용으로 쓰다 보니 후박나무가 되었는지 실제로 의심이 간다.

(7) 本草綱目⁷¹¹

卷三十四

楠

皮(氣味)苦, 溫, 無毒, (主治)藿亂吐瀉, 小兒吐乳, 暖胃正氣, 竝宜煎服

卷三十五

厚朴

..

(氣味)苦. 溫 無毒 ...

(8) 東醫寶鑑⁷²에는 厚朴이 唐材로 標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輸入되었음이 확실하다

3. 後 記

이상에 인용한 자료이외에도 조사한 자료가 많으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기존 문헌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전시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진품이 진품으로 인정되지 않고 와전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으나, 이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 사용해야 하며 설령 대용품용을 써야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서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향약집성방을 편찬한 분들이 전혀 다른 식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올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인용한 서문의 뜻을 생각한다면) 구하기 어려운 중국의 후박 대신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후박나무가 이름도 같을 뿐 아니라, 氣味도 같으며 藥效-主治-도 근사하므로 植物을 대체할 수도 있으며, 또 한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시험정복에서 지적함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중국에서도 그들 여러가지의 후박을 혼용했는지도 모른다. 그 근거로 본초강목 厚朴條의 나무형태와 생태를 설명한 글과 향약집성방의 그것이 동일한데 그 설명문을 다음에 인용한다.

· ·木高三四丈徑一二尺春生葉如楸葉四季不凋紅花而青實皮極鱗皴而厚紫色多潤者爲佳薄而白者不堪·

· ...나무 높이는 3~4丈이며 직경은 1~2尺이고 봄에 난 잎은 곱엽과 같으며 사철 시들지 않고 -常綠- 꽃은 붉고 열매는 靑色이며 나무껍질은 아주 거칠고 두껍다. 紫色에 潤氣가 많은 것이 좋으며 얇고 흰 것은 약에 쓰지 못한다. ·

이상의 인용문을 보면 본래의 후박과도 부합되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토후박과도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여기에 인용된 글로 보아서는 어떤 나무를 지칭하는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본래의 후박이 아닌 요엽후박이나 일본목련의 경우에는 본래의 후박과 같은 속 - 植物分類學上의 屬 Magnoliaceae-이므로 대략 근사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용에 문제가 없다 하겠으나 우리나라 후박나무의 경우에는 전혀 다른 식물이므로 설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 본 초

그 진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며, 진품을 구하기 어려워 대용품을 써야 할 경우라도 사실 자체가 왜곡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하며 우리 학자는 후박 이외에도 또 다른 약용 천연물이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주의해야 할 것이며, 있다면 그것을 규명하여 약용물(藥用物)의 기본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4. 참고

現代生藥學¹³에 기록된 각 후박의 성분을 인용하여 참고로 제공한다

① 후박(托후박)

〈기원식물 학명〉 *Machilus thunbergii* *Machilus thunbergii* var *obovata*

〈성분〉 α, β -pinene, camphene, cis-osmene, trans-ocimence, caryophyllence, β -elemene, meso-dihydroguajartie acid, machilin A, B, C, D, E, 기타, 다당류, 수지, tannin

② 당후박(唐厚朴)

〈기원식물 학명〉 *Magnolia officinalis*

〈성분〉 β -eudesmol(machilol), α , β -pinene, camphene, limonene, bornylacetate, caryophyllene epoxide, magnolol, honokiol, neolignans, α -eudesmol, cryptomeridiol, magnocurarine, magnoflorine, anomaine, michelarbine, liriodenine, salicifoline

③ 일후박

〈기원식물 학명〉 *Magnolia obovata*

〈성분〉 α -eudesmol, β -eudesmol, γ -eudesmol, mafnolol, honokiol, obovatol, obovaldehyde, mafnocurarine

× 밑줄이 주성분이라 함

托후박은 우리나라 남해안과 섬에 자생하고 있으며, 당후박과 요엽후박은 우리나라에 자생하지 않으나 원색천연약물대사전에 실린 사진은 충남의 천리포수목원에서 촬영한 요엽후박과 대전에서 촬영한 후박이라고 되어 있으며, 일본목련도 우리나라에는 자생하지 않으나, 전남 광양시에 있는 서울대학교 연습림에 많은 개체가 식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주(註)

1 標準本草學 김정壽 進明出版社

2 木蘭科 木蓮科와 같다

- 3 和厚朴 日厚朴, 日本木蓮의 樹皮
- 4 原色本草維新 1979년 辛民敎 慶苑文化社
- 5 原色天然藥物大事典 1989년 金在佶 南山堂
- 6 校正中藥大辭典 1992년 醫聖堂編輯部 醫聖堂
- 7 試驗征服 短期完成 新規 漢藥鍾商 試驗征服 昭和十六年 李泰告 杏林書院
- 8 內地 日本
- 9 落葉喬木 常綠喬木의 잘못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 10 鄉藥集成方 1433년 兪孝通 等
- 11 本草綱目 1590년 李時珍
- 12 東醫寶鑑 1610년 許浚
- 13 現代藥學 1933년 生藥學研究會 學窓社

㉠ 대한 식물도감 (향문사) ㉡

후박나무 *Machilus thunbergii* S et Z

[녹나무 科]

울릉도 및 남쪽 섬에서 자라는 常綠喬木으로서 높이 20m, 지름 1m에 달한다 잎은 互生하지만 가지 끝에 모여서 붙어 있는 것같이 보이며 羽狀의 脈이 있고 質이 두꺼우며 倒卵狀 橢圓形 또는 도란상 긴 타원형이고 길이 7~15cm, 나비 3~7 cm로서 꼬리처럼 길어진 漸尖頭의 끝이 둥글며 밑부분이 鈍低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으며 양면에 털이 없고 표면은 녹색, 뒷면은 灰綠色이며 葉柄은 길이 2~3m로서 굵다 5~6월에 새잎이 나올 때 털이 없는 圓錐花序가 腋生하고 많은 黃綠色의 兩性花가 달리며 小花梗은 길이 1cm 정도이고 花被裂片은 3개씩 2줄, 수술은 3개씩 4줄로 배열되며 안쪽의 3개는 꽃밥이 없고 암술은 1개이다 열매는 다음해 7월에 黑紫色으로 익으며 지름 1.4cm 정도로서 둥글고 果梗은 적색이다 樹皮를 厚朴皮라 하여 喘息 및 胃腸病에 사용하며 木材는 家具材로 사용한다 잎이 倒卵形이고 길이 6~8cm, 나비 3.5~5cm인 것을 왕후박나무, var *obovata* NAK 라고 하며 진도와 흥도에서 자란다

일본목련 *Magnolia obovata* Thhumb [목련과]

일본에서 들어온 落葉觀賞樹로서 중부 이남에서 原產地에서는 높이 20m, 지름 1m 정도 자란다 잎은 互生하거나 가지 가지 끝에 丛生하며 倒卵狀 긴 타원형이고 가장자리가 밋밋하며 끝이 뾰족하고 밑으로 좁아져서 鈍底 또는 圓底로 되며 길이 20~40cm, 나비 13~25cm로서 표면에 털이 없고 뒷면은 흰빛이 돌며 잔털이 있다 꽃은 5월에 잎이 핀 다음 가지 끝에 1개씩 달리고 연한 누른빛이 도는 백색으로서 지름 15cm이며 향기가 강하다 꽃받침잎은 3개이고 꽃잎과 비슷하지만 짧으며 꽃잎은 6~9개이고 倒卵形이며 길이 6cm로서 약간 肉質이다 수술과 암술이 많고 수술대는 밝은 홍색, 꽃밥은 황백색이며 열매는 긴 타원형으로서 길이 20 cm 이상 되는 것이 있고 가을에 紅紫色으로 익는다 鍾子는 골돌속에 2개씩 들어 있으며 익으면 벌어지는 백색 실에 매달린다

의성당 교정증약 대사전

厘米, 先端圓而有短急尖頭, 稀鈍, 基部漸狹成楔形, 有時圓形, 全緣, 上面淡黃綠色, 無毛, 幼葉下面有密生灰色毛, 老葉呈白粉狀, 脊脈上密生長毛, 葉柄長 3~4 厘米 花與葉同時開放, 單生枝頂, 杯狀, 白色, 芳香, 直徑15厘米, 花梗粗短, 長 2~3.5厘米, 密生絲狀白毛, 葉片與花瓣共 9~12, 或更多, 肉質, 幾等長, 惡片長圓狀倒卵形, 淡綠白色, 常帶紫紅色, 花瓣匙形, 白色, 雄蕊多數, 螺旋狀排列, 雄蕊心皮多數, 分離, 子房長圓形 聚合果長橢圓狀卵形, 長 9~12厘米, 直徑5~6.5厘米, 心皮排列緊密, 成熟時木質, 頂丹有彎尖頭 種子三角狀卵形, 外種皮紅色 花期 4~5月 果期 9~10月

分布浙紅, 廣西, 洪西, 湖南, 四川, 貴川, 雲南, 陝西, 甘肅等地

㉢ 凹葉厚朴 *Magnolia biloba* (Rehd et Wils) Cheng, 又名 廬山厚朴

與上種的主要不同點, 在葉片先端凹陷成 2 唇圓淺裂片, 裂深 2~3.5 厘米

分布弑江, 江西, 安徽 廣西等地

■ 本 草

以上兩種植物的花蕾(厚朴花),果實或種子(厚朴子)亦供藥用,各詳專條

〔栽培〕①氣候土壤宜濕潤冷涼的氣候對嚴寒,酷暑,雨水太多的地方均不適宜以肥沃流沙的壤為最好

②整地苗床選擇半陽地區,施人糞尿,堆肥作基肥深翻整細勻平,作成寬1.3米的高畦

③種植一般採用種子繁殖,播種期2~3月,育苗播種前將種子先用冷水浸泡10天,取出後10分鐘,種皮自然裂開時播種,撒播或條播,條播行距30厘米,將種子均勻地播於苗床,覆細土3~4厘米厚,微微壓緊再蓋一層稻草,且水濕潤培育二年後,應在2月左右,苗高30~60厘米時,進行移植移植時按株距2.5~3米開穴深60~80厘米,將根系全部埋入土中為度,栽培後勻土壓實此外,尚有利用老樹周圍萌出的苗進行壓條繁殖

④田間管理幼苗期經常注意且土除草與且水,施追肥1~2次移植後,經常且水,以利成活,在最初56年內一般不施肥料,但為植株生長好,每年在春秋兩季施堆肥或厩肥各一次,並結合培土

⑤病蟲害防治幼苗期易得根腐病,根腐爛後引起植株死亡,須注意排水,並將病株拔擢,以防傳染常見的蟲害為白馬的危害根部,用可濕性“六六六”兌水施於根部周圍殺滅天牛危害樹幹,可用捕捉法,或用可濕性“六六六”及“適適涕”等殺蟲劑灌入蟲孔,將孔閉塞毒死

〔採集〕立夏至夏至間剝取生長20年以上的植株的幹皮或根皮(須先將外表粗皮刮去),陰乾,再堆放於土內,在一定的溫度和濕度下使之發汗,取出曬乾,再蒸熟使變軟,捲成筒狀,陰乾細小的根皮,只須除淨泥土,適當切斷,陰乾即可

〔藥材〕商品由於採皮的部位,加工及形狀的不同,種類很多,主要有筒朴,靴角朴,根朴,枝朴四類

①筒朴為主幹的幹皮,經加工後捲成雙捲筒狀,形似“如意”,故又稱為“如意捲厚朴”或“如意朴”長15~45厘米,厚2~5毫米表面呈淡棕色至深棕色,較薄的皮,表面裂紋少,有縱紋,可見圓形縱裂皮孔,較厚者,表面粗老,栓皮鱗狀,易剝落內表面紫棕色,平滑,有細致的縱走紋理,以指

甲劃之顯油紋質較潤而堅硬,不易折斷,斷面外側呈灰棕色纖維性,內側為紫棕色顆粒狀,油潤性氣芳香,味微辛,咀嚼之少殘渣

②靴角朴為近根部的幹皮,經加工後其形如靴,故名全長約30~40厘米,厚約3~10毫米外皮粗老,灰棕色或灰褐色,栓皮易剝落上端為單捲筒狀,基部展開成喇叭口形,有縱裂紋及風琴紋呈凹溝狀因厚薄不均而形成紫棕色和灰黃色相間的花紋,並有刀割痕內面為深紫色或深紅色,有直條紋,下部凹下的橫溝,與外皮的橫琴紋相對,以指甲劃之,可見油紋質潤而老,但易折斷斷面紫棕色,顆粒狀氣辛香,味苦而辣,咀嚼無殘渣

③根朴為根皮經加工後捲成單或雙捲,多劈破,形彎曲如鷄腸,故又名“鷄腸朴”長15~45厘米,直徑0.5~2厘米,厚約1~3毫米表面粗老,灰棕色,有橫裂紋及棕琴紋,破處有纖維狀物露出,內表面深紫棕色,有顯著的縱紋及枝根痕質韌,難折斷,斷面纖維性,油潤氣味與幹皮同但咀嚼後貴留的殘渣較多

④枝朴為粗枝上剝下的皮,長10~20厘米,厚1~2毫米表面稍粗老,灰褐色,有縱琴紋及斑痕,有時可見大型孔洞內表面深紫棕色,平滑,有深直條紋,質韌,易折斷斷面纖維性氣味與幹皮同,咀嚼後殘渣較多

以上各種厚朴,斷面均有點狀閃光性結晶以皮粗肉細內色深紫,油性大,香味濃,味苦辛微甘,咀嚼無殘渣者為佳

主產四川,湖北,浙江,湖南以四川,湖北所產質量最佳,稱紫油厚朴,浙江所產稱溫朴,質量亦好北外,福建,江西,甘肅,陝西等地亦產

(全南 順天市 남정동 T 745-0787)